



송은이(왼쪽)와 신봉선.

### 신봉선·송은이 등 '못난이' 개그우먼들 종횡무진 활약

## 철저히 망가지다, 그리고 예뻐받다



<김신영>

<박지선>

'못난이' 개그우먼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넘치는 예능계에서 이들은 '못생기고 뚱뚱한' 비호감 외모를 개그의 소재로 적극 활용해 웃음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에서도 MC, DJ, 고정패널 등으로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조각 같은 성형미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외모와 솔직함으로 시청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사랑을 받고 있다.

요즘 예능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개그우먼은 신봉선. '짜증 지대루다' '윤지 않아' 등의 유행어를 잇따라 히트시키며 주목 받았던 그녀는 각종 프로그램의 고정패널을 거쳐 이제는 방송 3사에서 MC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 신봉선이 MC를 맡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요일이 좋다-골드미스가 간다'(SBS), '신동엽 신봉선의 샴페인'(KBS), '해피투게더 3'(KBS), 케이블 MBC에브리원 '무한걸스'. 지난달부터는 송은이와 함께 SBS 라디오 파워 FM '송은이 신봉선의 동고동락' DJ까지 맡고 있다.

그렇다고 자신의 본업인 개그를 소홀히 하진 않는다. 지난 23일 방송된 '개그콘서트-대화가 필요해'(KBS)에서 신봉선은 손담비의 색시상을 똑같이 갖춰 입고 '미쳤어'

노래에 맞춰 의자춤을 완벽하게 소화해 낸 뒤 "내가 미쳤어! 술담배"라고 말해 시청자들을 폭소케 했다.

특히 신봉선은 지난 26일 산업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브랜드 파워 여자 코미디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한 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MC 유재석과 함께 '연말 송년회 함께 보내고 싶은 연예인' 1위에 뽑히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나 잇몸 나온 여자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외모를 활용해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줬던 박지선은 '개그콘서트-조선왕조부록'에 못생긴 원빈마마로 출연한 데 이어 이제는

'봉숭아 학당'과 '대포동 예술단'에서 각종 패러디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박지선은 지난 23일 방송된 '해피투게더 3'에서 인턴MC 최초로 두 번째 출연, 다시 한번 재치있는 멘트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신영도 넘치는 끼를 자랑하는 개그우먼 중 한 명. 김신영은 아예 패러디를 자신만의 개그 장르로 만들고 있다. 그녀는 강진의 '뽕뽕', 원더걸스의 '소 핫',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이효리의 '유고걸' 등을 각각 '뽕뽕', '소 콜드(So cold)', '보이지 않는 식욕', '유도칼'로 패러디해 인기를 모았다. 또 얼마 전에는 원더걸스의 '노바디'를 '노거리'로 개사해 양순애 노가리를 들고 자신만의 느낌으로 춤을 완벽하게 소화, 네티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신봉선, 김신영과 함께 케이블프로그램인 '무한걸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송은이 역시 예능계 만능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달달한 이미지로 고정 패널 등으로 꾸준히 방송활동해 온 그녀는 요즘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있다! 없다?'(SBS), '일요일이 좋다-골드미스가 간다', SBS 라디오 파워FM '송은이 신봉선의 동고동락'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예능프로그램의 게스트로 출연해 노련미를 발산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SBS '스타의 연인' 최지우 "멜로에 굶주렸는데... 너무 설레요"

"멜로를 하고 싶었어요. 멜로에 굶주렸다고 해야하나, 다시 하게 돼 기뻐요."

'멜로의 여왕' 최지우(33)가 내달 10일 첫선을 보이는 SBS TV '스타의 연인'을 통해 멜로 드라마에 복귀한다.

최근 열린 '스타의 연인' 제작발표회에서 최지우는 "그동안 이미지 변신을 해야 한다는 약간의 압박감이 있어 지난해 '에어 시티'에도 출연했던 것"이라면서 "멜로를 하고 싶었던 차에 연애를 하는 설레는 감정을 다시 느껴보니 너무 좋았다. 가을, 겨울과 잘 어울리는 드라마 같다"며 활짝 웃었다.

그가 맡은 이마리는 당대의 톱스타로 술한 남자들의 프러포즈를 받지만 모두 거절한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서 만난 서울대 대학원생 김철수(유지태 분)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지금껏 멜로 연기를 해오면서 각각 다른 멜로를 선보였다고 생각했는데 보시는 분들은 '최지우 또 똑같이 울고 불고 한다'고 말씀하셨던 같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이미지 변신을 했다고 할까, 액션을 해야 하나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 배우가 어떤 분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가 맡은 이마리는 당대의 톱스타로 술한 남자들의 프러포즈를 받지만 모두 거절한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서 만난 서울대 대학원생 김철수(유지태 분)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나 자신이 배우이긴 하지만 '노탕할'이나 '모마의 휴일' 같은 작품을 보면 설레다. 또 그런 사랑을 꿈꿔보기도 한다. 마리와 철수의 사랑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드라마이기 때문에 더 극적인 것 같다."

그는 이 드라마에 앞서 8개월 간 발레 연습을 했다. 이어 그는 "서른 넘어 발레를 하려니 정말 힘들었다"며 "쉬는 동안 한번 배우보자는 생각으로 도전했는데 마침 드라마에서도 발레 신이 등장한다고 해서 몇개월간 스파르타식으로 열심히 배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11 BOX OFFICE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미인도	40만16천395	128만16천48
2	서양 골동 양과자점 엔틱	21만3천126	88만4천231
3	007 퀴엠티 오브 솔라스	20만3천804	186만7천774
4	눈먼자들의 도시	19만5천836	24만831
5	맥스 페인	10만5천419	13만8천116
6	카넥트	6만16천155	9만5천294
7	아내가 결혼했다	4만3천749	176만1천416
8	벅크 집	1만9천433	54만7천178
9	플레이 미 투 더 문	1만6천367	16만7천349
10	렛 미 인	1만3천571	4만4천441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나는 내운명	KBS1	35.7
2	일요일이 좋다 1부	SBS	25.1
3	에덴의 동쪽	MBC	24.9
4	내사랑 금지옥엽	KBS2	22.3
5	무한도전	MBC	19.3
6	개그콘서트	KBS2	18.4
7	우리의 성	SBS	18.2
8	KBS 뉴스9	KBS1	18.0
9	해피 투게더	KBS2	17.4
10	타짜	SBS	17.3

(자료제공:TNLS리서치)

순위	제목	장르
1	원티드	액션
2	태이큰	스릴러
3	현혹	액션
4	콩투펀더	애니메이션
5	인디애나존스:크리스탈해골의 왕국모험	액션
6	월-E	애니메이션
7	강철중:공공의 적1-1	스릴러
8	영화는 영화다	액션
9	남은 먼곳에	드라마
10	인크레더블 힐크	액션

(자료제공:오피와 버금)

순위	제목	가수
1	붉은 노을	빅뱅
2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
3	아재보다 오늘 더	김종국
4	노바디	원더걸스
5	마이 스타일	브라운아이즈걸스
6	러브 스토리	비
7	어쩌다	브라운아이즈걸스
8	미쳤어	손담비
9	주문-미로틱	동방신기
10	잇 유 업	보아

(자료제공:멜론)

제18228호 2판  
2008년 11월 29일 토요일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51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29 <광고이메일>  
정재부 2200-616 <팩스 222-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사회2부 2200-619 <팩스 222-4267> 문화홍보부 2200-541  
사회3부 2200-619 <팩스 222-0195>  
독자서비스국 <팩스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8 2200-551  
어문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월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27회 CBS 성가대합창제

CBS 성가대합창제는 광주 CBS가 광명문화재단과 함께  
다양하고 평화를 온누리에 전하기 위해 매년 연말  
신나게 온 광명문화재단에서

관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제와 감동과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08년 12월 1일(일) 오후 7시
-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최: 광주CBS
- 공연문의: 062)3376-8500-1